

<아시아공동체론> 강의후기 및 전반적인 소감

인문학부 사학전공 이유정

1년 만의 복학인데다가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의의 형식이 아닌 강연의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아시아공동체론」의 개설 공지를 보고 잘됐다 쾌재를 부르며 수강신청을 했다. 어찌됐든 시험으로 평가를 받아야하는 강의 형식의 일반적인 수업보다, 강연이라고 한다면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일회성이 될 것임이 다분하긴 하지만 마음만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체 수업을 다 듣고 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보통의 대학수업으로써의 강의와 「아시아공동체론」은 전혀 다를 것이 없었고 흔히 말하는 ‘꿀’과목이라며 여유를 부릴만한 수업은 더더욱 아니었다.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취급함에 있어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강연의 형식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학부생에게 양질의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형식을 보통과는 다르게 설정한 것일 뿐이었다.

1년 전, 국제학부의 해외현장연구 수업의 일환으로 일본에 잠시 다녀온 경험이 있다. 해외현장연구를 신청하기 직전에는 인문대학 학생회의 일원으로 학교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기도 했었고, 아주대에서 처음 개최된 학부생연구논문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터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의 경험은 나의 자부심을 아니, 자만을 일깨워주는데 한 몫 했고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한 학기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일주일에 단 한 번, 열하고 대여섯 번 남짓한 시간 동안 ‘아시아 공동체’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방문해주셨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접하면서 일상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버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소위 다른 세상의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기에, 1년 전 그 때처럼 나는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어떤 수업이라도 그 수업을 듣고 나면 항상 여운이 남는다. 그 여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효용이 생겨나는 데, 1년 전 해외현장연구가 그랬듯, 올해는 「아시아공동체론」이 나에게 어떠한 효용을 제공해 줄 여운을 남겨주었다. 또, 「아시아공동체론」을 함께 들었던 학우들 중 몇몇은 분명, 전의 그리고 지금의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누구 못지않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나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그 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달라졌다. 점점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보이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리 저리 켤 것 또한 많아졌다. 궁극적으로는 같은 그 꿈의 크기는 현저하게 작아졌고 어느 순간에는 언제 내가 그런 꿈을 가졌었는지도 모를 만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아시아공동체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처음 품었던 큰 꿈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자극을 주었다.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직후,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한국인 선생님들 혹은 일본인 선생님들이 꽤 자주 강연을 하러 오게 되어 특히 더 자극을 받았다. 이번 수업을 통해 내 스스로는 한 발자국 내딛었다. 한 발 내딛었으니 다음의 두 발도 내딛을 수 있다. 그렇게 한 발, 두 발 내딛다보면 나도 모르게 종착역에 다다를 것이고 꿈을 이룬 내가 있을 것이다. 「아시아공동체론」 덕분에 일주일 가운데 가장 지칠 수요일 저녁, 나는 누구보다 빛날 수 있었다.

한 가지 이번 수업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다 된밥에 재 뿌리는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장학재단의 협조를 통해 운영되는 수업이었기에 학부생으로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여러모로 양질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청강자 또한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5분에서 10분 남짓한 질의응답 시간은 성적을 높이기 위한 강제된 질문들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었다. 인터넷의 검색엔진을 통하면 10초 내에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묻는 유의 질문, 강연자의 말꼬리를 잡고 질문인 척하는 유의 것들.... ‘장학’이라는 미명 아래 저지 할 사람도, 저지당할 사람도 없는 지식적 무질서의 온상, 온갖 방법으로 무지함을 표현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은 질의응답은 애써 만든 강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강연자 혹은 강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지도 선생님들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청강자 뿐 아니라 강연자 또한 더욱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